

순창군, 국가암 도내 검진율 1위

여성방사선사 채용 순창군민 요구 반영

순창군이 국가암 검진을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7월말 현재 암 검진율이 전북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총 대상 1만4,974명 중 3,667명이 검진을 완료했다. 특히 유방암 검진은 2016년에 76명, 2017년에 65명 이던 것이 올해 현재 216명을 기록해 군민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또 자궁암 검진도 지난해에 비해 43명이나 증가했다.

이처럼 유방암 검진이 늘어난 것은 최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순창군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암 검진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여성암 검진율이 저조한 점을 해결하고자 여성방사선사채용, 여성방사선사가 직접 촬영 한 후로 유방암 및 자궁암 검진률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

군은 현재까지 유방암 검진 결과 유



순창군이 국가암 검진을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방암 의심환자 3명, 자궁암 의심자 1명을 발견, 종합병원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도 제공해 발 빠른 보건행정 모습을 보여줬다.

군은 또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5대암 검진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해 검진율은 높이고 암 조기 발견으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정영곤 보건의료원장은 "여성방사선사 채용으로 여성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펼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에 소외된 계층지원과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남원농협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남원시, 전국 최초 농작업 대행 장비 지원

노동력·생산비 절감기반 구축

남원시는 전국 최초로 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농업기계화에 소외된 계층지원과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남원농협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행 장비에는 습답 등 작업

환경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작업이 용이한 벼 수확기 1대와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논 타 작물 재배지원 사업의 대대적인 확대를 위해 콩, 울무, 밀, 보리, 메밀 등 수확작업을 할 수 있는 크라스콤바인 1대이다.

올해에 대비 5,850만원 시비 1억 3,650만원 자부담 1억3,000만원으로

총사업비 3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8월 중순 농기계 공급을 완료했다.

이환주 시장은 "농번기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다양한 영농지원 사업들을 추진하여 적기에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민원과는 매월 2회 실시하는 친절교육 중 1차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외부인의 눈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있다.

남원시 '친절 감동행정 실현해요'

남원시 민원과, 행복민원센터 조성

남원시가 '매우 친절할 남원시 만들'을 민선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상대하고 있는 민원과가 친절마인드를 한 단계 높이는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주목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원과는 매월 2회 실시하는 친절교육 중 1차는 외부강사를 초청해 외부인의 눈을 통한 친절마인드를 높이고 있고, 2차 교육은 전 직원이 1일 강사가 되어 업무 중 직접 체험하고 느낀 친절과 불친절의 유형을 뒤돌아보고 보다 더 친절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발표하는 공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원실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뜻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흰색 셔츠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실 입구에는 친절 거울을 설치해 비소를 지으면 친절이 보인다는

는 글귀와 함께 친절한 마음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여유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민원센터"도 조성, 민원인들은 행복민원센터에서 민원상담, 사무기기를 이용한 업무처리, 건강체크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여성과 아이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북카페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민원과에서는 앞으로 ▲친절 병행 나누기 ▲전 직원 친절 토론회 개최 ▲신규공무원 민원안내 체험 등 다양한 친절시책을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철 민원과장은 "친절은 마음에서부터 습관화 되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민원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친절함 남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군 지사면 아름다운 꽃길 조성

임실군 지사면 변영회(회장 최용래)와 구심회(회장 최수용)는 지난 14일과 23일 지사면 오수천 제방과 국도 13호선에서 코스모스 및 메리골드를 식재하고 주변 잡초제거 실시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했다.

양 단체 회원 100여명 새벽 5시부터 오수천 제방 4km구간 코스모스 50만주와 국도 13호선 5km 구간에 코스모스 5만주 및 메리골드 1만주를 구슬땀을 흘려 가며 식재했다.

이번 꽃길조성을 주관한 최용래 변영회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사면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양 단체가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호국원 직장내 성폭력 예방 교육

국립임실호국원(원장 윤명석)은 23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BSC연구소 임근희 강사를 초청하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희롱 등 근절 아이디어·의견 개진 토론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사항, 주요사항, 주요사례 등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로 교육을 마무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반찬 지원

순창군 적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영옥)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음식준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지난 7월에 주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협의체 위원들이 가정방문 등 실사를 통해 8개 가정을 선정해 월2회 5~6가지 반찬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한다.

윤영옥 위원장은 "가정방문을 하다



보면 반찬도 없이 물에 밥말아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익수자 구조 표창 예정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달 31일 남원시 뱀사골계곡에서 익수자를 구조해 응급처치를 한 탁강욱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탁강욱씨는 "인명구조사 같은 자격증은 없지만 수영을 좋아하고 마침 수경도 목에 걸고 있어서 잠수할 수 있었다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서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조용주 소방서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탁강욱씨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